

# 광주·전남 기초의회 원구성부터 빠걱

나주·해남, 의장단 선거 소수당 불참속 민주당 독식  
서구 '담합설' 공방 가열·북구는 '협의체 구성' 제안

광주·전남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개원 초부터 빠걱거리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장단 독식과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들간 담합 및 갈등, 정당 개입설 등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당 의원들의 '의장단 독식 기도'에 소수당 의원들은 선거 불참으로 대응하면서 의정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3일 무소속 의원 5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가해 의장과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들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무소속 의원들은 이와 관련 "동료 의원들에게 한 마디 양해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끼리 일사천리로 원 구성을 끝냈다"며 "이는 무소속 의원에게 절반의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나주시의회는 민주당 9명(비례 2명 포함),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31 선거에서 득표율은 민주당 47%, 무소속 40.2%, 열린우리당 12.8% 순이었다.

해남군의회도 4일 임시회에서 무소속 2명과 열린우리당 1명(비례대표) 등 의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8명이 의장단을 선출하

는 등 파행을 겪었다.

3일 의장단을 선출한 광주 서구의회는 '담합설'에 따른 논쟁이 한창이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7명, 열린우리당 4명, 민주노동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할 경우 과반수 득표자를 얻 수 있어 의장단의 민주당 독식이 예상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의장과 부의장 선출자들의 득표율은 7표로 적중했지만 의장 당선자는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소속 초선의 나정숙 의원이었으며, 부의장은 열린우리당 강기석 의원이 차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당을 배신했다. 부도덕한 정치야합에 의해 탄생한 의장과 부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 6명 의원은 배신과 애합으로 이뤄진 의회 원구성을 동참하지 않고 서구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장은 이에 대해 "당이 기초의회 원 구성에 개입하고 여성과 다른 당을 배제한 채 특정 의원을 의장·부의장으로 뽑아간 데 대해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다른 당 의원 누구와도 사전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광주 북구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승희·김상훈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장단에 선출되기 위한 개별적 접촉 보다는 정당별 협의체를 통해 투명한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며 3당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민주당 10명, 열린우리당 8명, 민주노동당 2명 등으로 구성된 의석 분포상 의장단 선거에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하게 된 이들은 "각 정당별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소야 연대' 교섭단체 생기나

민주, 민주노동당 등 연대 추진

원내 제3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야(小野)' 연대를 통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가 아니면 국회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내기가 어렵다"며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등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표단 회의를 갖고 "현 구도 하에서 민주당이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고 이 벽을 넘어서려면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교섭단체 구성에 의욕을 보이는 이유는 국회 법상 교섭단체만이 국회 회기일정, 상임위 배정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운영비 지원, 정책 연구와 설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11석, 국민중심당은 5석으로 민노당(9석) 또는 무소속 의원(5석)이 '비교섭 연대'에 합의하면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만약 '제3의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참여한 정당들이 협의해 명칭을 정할 수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격인 '대표의원'은 내부 합의에 따라 순번제 등으로 각 정당에서 돌아가면서 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영복 의장

김상웅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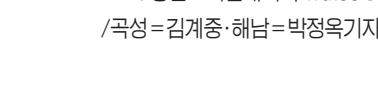
조영복 의장

김판준 의장



조영복 의장

김평운 의장



조영복 의장

김판준 의장



조영복 의장

김평운 의장

## 한나라 당권 후보들 호남구애 공약 '봇물'

비례대표 30% 할당·당직 대거 임명 등

지역 정치권이 한나라당을 주목하고 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권 주자들이 호남 구애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지역 등 취약지역에 비례대표를 대폭 할당하겠다는 주장은 광주·전남 지역 한나라당 인사들은 물론 그동안 한나라당을 경원시했던 정치 지망생들의 귀를 풍곳 새우게 하고 있다.

우선 이재오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의 50%를 호남 등 취약지역에 배분하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적시되어 있는 '취약지역 비례대표 배분율 30%'보다 무려 20%나 늘어난 것이다.



한나라당 당권 후보들의 호남 구애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8명이 4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아 올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최소한 원내 2당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적어도 4~5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 자리가 호남 둑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더라도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30%를 호남 등 취약지역에 배정한다'는 규정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비례대표 배분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차기 총선에서 최소한 4~5석 정도의 비례대표 자리가 호남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까지 한나라당에 입당하겠다는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 인사를 예상되며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눈길이 상당히 부드러워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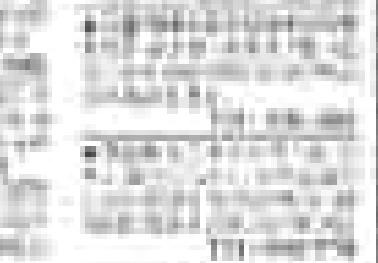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차기 총선에서 최소한 4~5석 정도의 비례대표 자리가 호남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까지 한나라당에 입당하겠다는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 인사를 예상되며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눈길이 상당히 부드러워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3일 광주 동구의회는 의장에 조영복(민주), 부의장에 박종균(열린우리당) 의원, 같은 날 광산구의회는 의장에 전양복(민주), 부의장에 이준열(민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광주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에 4선의 김관준(민주) 의원, 부의장에 2선의 김정곤(민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앞서 3일 광주 동구의회는 의장에 조영복(민주), 부의장에 박종균(열린우리당) 의원, 같은 날 광산구의회는 의장에 전양복(민주), 부의장에 이준열(민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광주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에 4선의 김관준(민주) 의원, 부의장에 2선의 김정곤(민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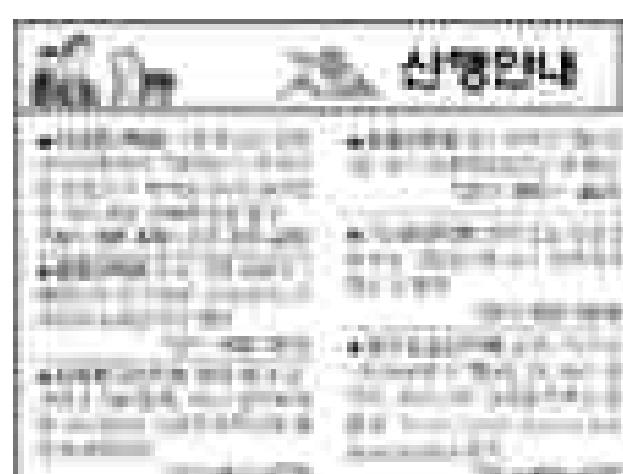


## 전립선의 새 생활을... 전립선 J2V

전립선의 새 생활을...  
전립선 J2V

전립선의 새 생활을...  
전립선 J2V

대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 1588-3871



마옹그룹 세종에서  
유능한 매니저를 모십니다.

마옹그룹 55층 ☎ 062-223-1063

## 농업직 교사채용

채용 과정

면접, 면접고사, 학력증명서  
면접, 면접고사, 학력증명서  
면접, 면접고사, 학력증명서

채용 시기

면접 2월  
면접 2월  
면접 2월

모 수

면접 10명  
면접 10명  
면접 10명

면접 10명  
면접 10명  
면접 10명

7.3  
전남고시학원

